

# 장성 백암리에 관광·휴양·전원주택 단지 조성

### 장성군, 모아종합건설 등과 협약 18만㎡에 주택 200세대·야영장 등

장성 북이면 백암리 일대에 고급 전원주택 단지  
와 휴양·레저시설이 들어선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과 ㈜모아종합건설, ㈜  
인디브리움, ㈜장성백암편백베섯은 지난 23일 군  
청 상황실에서 '북이면 백암리 관광·휴양·전원단지  
조성 사업(가칭 장성 브리움 옐로우 마운틴 빌리  
지)'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519억원을 투자해 백암리 일원 18  
만㎡ 규모를 개발한다. 200세대 내외의 타운하우  
스(전원주택단지)와 관광농원, 물놀이장, 야영장,  
분재원, 사계절 썰매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백암리 일원은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나들목(IC

)과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전형적인 구릉지여  
서 주변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또 먼 소재  
지와 인접해 도시와 전원생활의 이점을 동시에 누  
릴 수 있다고 장성군은 설명했다.  
장성군과 투자기업들은 올해 6월까지 개발 수요  
에 따른 맞춤형 전원주택 개발유형 등에 대해 시장  
조사 진행한 뒤 주택 형태와 관광·휴양시설 등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유두석 장성군은 "옐로우시티 장성의 특색을  
살린 고품격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그동안 소외  
된 장성 북부권역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장  
성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과 모아종합건설 등은 지난 23일 '북이면 백암리 관광휴양전원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양해각  
서를 체결했다. <장성군 제공>

## "양파 수확 도와주세요" 무안군 자원봉사자 모집

무안군은 오는 5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중만  
생종 양파 수확을 앞두고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은 양파 수확철  
만 되면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  
으로 일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친환경농업과, 읍  
면사무소, 읍면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원봉사는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한달 가  
량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농가는 고령농, 부녀농,  
장애인 등 농농여건이 어려운 농가다.  
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자원봉사활  
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공무원에게는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해 준다.  
귀능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에게는 봉사활동시  
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해주고, 타 지역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햇  
양파와 황토당알을 증정할 계획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함평군 '못자리용 상토 부정공급' 수사 의뢰

함평지역 못자리용 상토 부정공급 의혹(광주일보  
4월24일자 12면)과 관련, 함평군이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농협과 공동으로 추  
진하는 못자리용 상토공급 보조사업이 일부지역에  
서 입찰 탈락 제품이 공급되는 등 부정 사실을 확인  
하고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함평군은 지난 2월 못자리용상토선정추진위원  
회를 열어 4개 공급업체 6개 제품을 선정했다. 4개  
공급업체 중 3곳은 전남지역 업체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지역에 공급된 상토가 선정위에서  
선정된 제품이 아닌 탈락업체 제품인 것으로 드러  
나 부정공급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함평군은 지난 2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못자리용 상토의 부정공급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29일까지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  
공급 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 27일 상토  
선정추진위원회를 소집해 반품 여부 등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상토를 사용한 지역이  
있어 사실상 100% 반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 관계자는 "상토 공급업체에 경위를 확인  
한 결과, 내용불인 상토는 선정 업체의 제품인데  
포대만 바뀌어 공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진위를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공  
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군은 보조금 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경찰 수  
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집행할 방침이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kwangju.co.kr

## 여수상의, 위기 직면 정유사 주행세 납기 연장 건의

정부에 3개월 정도 유예 요청  
여수상의가 정유사들에게 부과하는 주행세의납  
기를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6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수상의는 "코  
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기의 경색국면이 장기화  
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원유 공급 과잉  
이 더해지면서 정유업체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  
해 있다"며 "5월 초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주행  
세를 최소 3개월 정도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  
했다.  
여수상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국  
무총리실 등에 지난 24일 보냈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GS칼텍스는 올해 1분기 매  
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

주행세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대신 유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차량운행  
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자가승용차 운행을 억제해 교통혼잡  
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행세는 정유사  
와 유류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지  
난 2000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중 3.2%를  
'주행세'라는 이름으로 전환해 지방세로 이양하고  
있다.  
로 알려져 있다. GS칼텍스가 내는 한 달 치 주행세  
는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완도군,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업 분야 종사자 의견 청취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



완도군이 섬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애로사항을  
듣고자 '현장소통 이동군수실'을 운영한다.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함에 따  
라 섬지역의 여객선사와 민박·펜션·식당 등 관광업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소통 이동군  
수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군수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섬 출  
입 통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해  
운업·관광업 등 관련 종사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완도군은 해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안 사  
업장을 찾아 이동군수실을 운영, 발 빠른 민원 해  
결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이동군수실 운영 첫날인 지난 23일에는 청산면  
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완도 관광산업 발전 방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청산도 단풍길  
연장 사업 및 야간 조명시설 설치, 청산도 메밀꽃·  
유채꽃 등 경관작물 재배면적 확대, 청산도 천혜의  
자연자원인 반딧불이·온하수·메밀꽃 등을 활용한  
계절별 축제 개최 등을 건의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젓새우 최대 산지 신안 송도항, 수산·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

### 목포해수청 260억 투입

국가어항인 신안 지도읍 송도항(사진)이 수산·  
관광 중심 어항으로 개발된다.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전국 최대  
젓새우 생산 집결지이자 슬로시티 증도의 관문인  
송도항을 수산·관광 거점 어항으로 개발한다.  
목포해수청은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접안  
시설·위판장 등 수산기반 시설과 주차장 등 내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수산·관광 거점 어항  
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7억원을 들여 기본  
설계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송도항은 전국 최  
대 젓새우 생산 집결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 또 슬로시티 '증도'로 가는 길목에 있어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젓새우



위판 때에는 구매자와 관광객들로 어항의 혼잡이  
극심하다.  
그러나 접안시설, 젓새우 위판, 진열, 보관 등 유

통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규표 목포해수청장은 "송도항이 수산·관광 거

점 어항으로 개발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젓새우 생  
산 특화 어항으로서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